

<컴패션 뉴스레터 1969년 7-8월호>

컴패션 사역의 확장

(사진)

에드 김볼(Ed Kimball) 컴패션 남아시아 현지 대표가 싱가포르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컴패션 사역은 1952년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보육원을 건립한 작 은 시작부터 180개의 보육원에서 약 24,000명의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사역으로 성장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위대한 사역의 초기 부터 우리와 함께해 왔고, 그 성장과 봉사의 감동을 함께 나누었으며, 수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 로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의 규모와 그에 따른 책임은 우리에게 매일 도전이 되며, 우리는 다른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의 확장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자금 투입과 미국의 재건 프로그램,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는 한국인들의 강 한 열망 덕분에 한국 경제가 크게 발전한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에서의 우리 사역은 계속되고 있 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이들이 아직 22,000명이나 있지만, 그들이 성장하여 보육원을 떠나 자립하게 되면, 또다시 버려지 는 어린이들로 보육원이 즉시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으로 인해 어린이 유기 문 제는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동남쪽에 있는 전라남도에 기근이 발생하면서 그 지역에 어린이 유기 문제가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고아를 돌보는 일이 줄어들고 있는 또 다른 좋은 요인은 이제 많은 한국 가족들이 고아를 입양할 의향이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 문화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돌보는 나 이가 어린 어린이들 중 많은 수가 한국 기독교 가정에서 입양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최근 보육원 원장님들이 데려왔지만 아직 후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입양 기관에 인 계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후원어린이가 입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양된 어린이를 대신하여 다 른 어린이를 기꺼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린이 중 한 명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 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는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어린이가 미국의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및 한센병 환자의 미감염 자녀 등 장애를 가진 모든 어린이를 위한 우리의 사역 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해서 중요하고 지속적인 사역이 될 것입니다.

1968년 초 컴패션 이사회는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기타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린이 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에드 김볼(첫 페이지 사진 참조) 전 한국 현지 대표를 동남아시아로 파견했습니다. 에드는 이 기념비적인 일을 기꺼이 감당했고, 컴패션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2,000명 이상, 인도에서 300명 이상의 어린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1개의 보육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우리 사역은 상당히 다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¹서이리안(West Irian)을 포함해 약 1억 7백만 명이며, 1966년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종교는 이슬람교 85%, 힌두교 6%, 기독교 4%로 나타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큰 부흥의 물결이 휩쓸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문화는 대체로 고대 폴리네시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육원을 선호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 단위가 유지됩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처음 조사했을 때, 우리는 많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지만 생계 수단이 없는 과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회학자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 즉 아무리 잘 운영되더라도 가족 단위가 온전하게 유지된다면 그 어떤 제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시험해 볼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컴패션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교회를 통해 사역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후원하여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입을 옷과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가정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후원을 받는 자녀를 둔 대부분의 과부들은 대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평균 8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대가족이라 할지라도 4명 이하의 자녀만을 후원하는 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는데, 이는 과부들에 대한 후원이 모든 자녀에게 생활필수품과 교육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과부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매우 실제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컴패션의 관심은 어린이들의 육체적인 보살핌뿐만 아니라 영적 훈련에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들의 가정 환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각 어머니(또는 경우에 따라 위탁 부모)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며, 자녀가 교회의 모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컴패션의 지원은 지역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며, 목사님은 이러한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컴패션 사역을 확장해 나감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비 목사님은 현재 아시아를 여행하며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¹서이리안(West Irian): 뉴기니섬 서반부와 부속 섬들을 포함하는 현재의 서뉴기니 지역을 가리키는 옛 명칭이다. 서뉴기니는 인도네시아 영토로, 과거에는 '네덜란드령 뉴기니'(1895~1962년), '서이리안'(1963~1973년), '이리안자야'(Irian Jaya, 1973~2001년) 등으로 불렸다. 뉴기니섬의 동반부는 파푸아뉴기니의 영토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B%89%B4%EA%B8%B0%EB%8B%88>).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역에 변화가 생기면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컴패션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이 성공적인 공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컴패션 어린이 합창단

3만여 명의 후원자들이 최근 미리암 스완슨 여사가 이끈 컴패션 한국 고아 5인조 중창단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린이들은 1969년 6월 10일 미국을 떠나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갔으며, 자신들의 특별한 집이 있는 서울에서 컴패션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에서 학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사진들은 어린이들이 떠나기 전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는 동안 찍은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지만 용감했습니다. 다른 어린이들처럼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지만, 쓰디쓴 약을 잘 마셨고, 주어진 모든 것을 큰 의문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빌리(Billy)는 가구 위로 올라가며 중간중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카고 소재 마운트 시나이 병원(Mount Sinai Hospital)에서 한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들은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평범한 어린이들과 다를 바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린이들은 태평양 끝에서 대서양 끝으로 미국을 약 20,000마일(약 32,186km) 왕복하는 동안 훌륭한 기병처럼 의젓하게 행동했고, 불평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내 친절하고 행복했으며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린이들은 또한 스완슨 여사가 자신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애원하고 간청했습니다. 하비 대표에게는 그녀를 한국 현지 대표로 파견하여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회유하려는 귀여운 시도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슬픈 마음은 미리암 스완슨 여사가 7월에 컴패션 비전트립팀과 함께 한국에서 1주일 보낼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조금 나아졌으며, 이제는 생각보다 더 빨리 재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의 어린이들 - 리사(Lisa), 빌리(Billy), 데비(Debbie), 낸시(Nancy), 조니(Johnny) -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우리의 풍요와 부유함을 경험했고, 미국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또래들과 비교하여 거의 누리지 못하는 문화에서 그들이 여전히 소중하고 행복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그들의 조국에서 주님의 종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스완슨 여사는 어린이들의 공연을 홍보해 준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공연을 통해 새롭게 등록해 주신 400명 이상의 신규 후원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컴패션 서클에 가입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 성경학교의 책임자인 시안투리(Sianturi) 목사, 중앙에 붕가(Bunga), 그리고 컴패션 남아시아 현지 대표인 에드워드 김볼(Edward Kimball) 씨가 펴 시안타르의 성경학교 간판 옆에 서 있습니다.
- 붕가의 학급으로, 앞줄은 교사진, 두 번째 줄은 여학생들, 마지막 줄은 남학생들입니다.
- 붕가가 한 교실에서 다른 교실로 걸어가는 모습
- 성경학교 예배당
- 성경학교 교실 건물
- 모든 학생은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붕가는 설거지를 돕고 있습니다.
- 붕가의 "침실" 모습. 침대는 단단한 나무이며, 나무 위에 작은 매트만 깔려 있습니다.
-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한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여학생들에게 주일학교 수업을 위한 ³플란넬그래프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이 학교에 많은 플란넬그래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경학교 책임자인 시안투리(Sianturi) 목사가 칠판 앞에서 붕가의 수업을 돕고 있습니다.
- 여학생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 시안투리(Sianturi) 목사와 판가비안(Pangabeian) 목사가 성경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붕가는 왼쪽에 서 있습니다.
- (왼쪽 상단): 경건 훈련은 고되고 엄격합니다. 붕가가 오전 5시에 시작되는 개인 예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 기부금 모금

자녀가 너무 많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신발 속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동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돌봐야 할 어린이들이 많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들과 후원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³플란넬그래프(Flannelgraph): 특수한 천으로 된 보드와 그 위에 붙일 수 있는 천으로 만든 그림이나 인물 모형

네, 어린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연례 겨울옷 기부금을 모집할 때가 되었습니다. 매년 우리 친구들은 관대하게 응답해 주셔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옷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인원수"로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이티, 싱가포르에 24,000명의 어린이가 새로운 옷이 필요합니다. 한국처럼 추운 겨울을 대비해 따뜻한 옷이 필요한 곳도 있고, 따뜻한 기후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 기후에 맞춰 크리스마스에 제공될 것입니다.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을 위해 여러분이 기부하실 수 있는 모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어린이 한 명당 의류 지원금은 8달러(지난해 대비 2달러 인상)입니다.

두 벌의 완전한 의류(여러분의 후원어린이와 또 다른 한 명)를 아낌없이 기부해 주신 친구들에게 실질적인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어린이들과 컴패션 이사회는 서울 영진직업훈련학교의 청소년들이 만든 1970년 실크 달력을 기념품으로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35~36, 40)

수신: 컴패션
7774 W.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 기부금을 동봉합니다.

금액: 8달러, 16달러, _____달러

2벌 이상을 기부할 경우:

1970년 실크 달력을 보내 주십시오.

이름: _____

(남성, 여성, 부부, 미혼 여성)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 번호: _____

컴패션 파일 번호(이전 영수증에 기재된 번호): _____

금훤한 마음 가득한 가족의 편지

우리 가족은 우리의 후원어린이가 한국의 기독교 가정에 입양되었음을 알려 주신 여러분의 친절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최점순(371번, 43호 피스풀 보육원(Peaceful Orphanage)) 어린이가 보낸 정성 어린 편지로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졌으며, 잠시나마 그녀의 가족이 되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45호 뉴 프렌드 가든(New Friend Garden)의 134번 안희자(An Hue Ja) 어린이의 후원서류를 받았습니다. 약 10초간의 가족회의 후 우리는 안희자 어린이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투표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보살피기 위해 수표를 동봉합니다.

소중한 어린이들에 대한 자비로운 보살핌에 대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훌륭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V. B. S. 가족 드림

새 영화: "맨 오브 컴패션(MAN OF COMPASSION)"

컴패션의 이야기를 이제 새로운 16mm 컬러 영화로 보실 수 있으며, 대여도 가능합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교회나 조직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오브 컴패션(MAN OF COMPASSION)"은 에버렛 F. 스완슨 목사님의 삶과 그가 어떻게 한국에서 집 없고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컴패션의 마음을 통해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도 전달됩니다.

대여료는 15달러이며, 영화의 상영 시간은 28분입니다.

영화 <더 런어웨이(THE RUNAWAY)>도 보셨나요? 이 영화는 몇 년 전에 촬영되었지만, 보육원에서의 생활과 자신도 모르게 비무장지대를 넘을 뻔한 불안한 소년의 탈출을 묘사하고 있어 여전히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그룹에서 상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아래 빈칸에 표시하셔서 두 영화 중 하나를 예약해 주세요.

<p>아래 표시한 영화를 예약해 주십시오.</p> <p><input type="checkbox"/> "MAN OF COMPASSION"</p> <p><input type="checkbox"/> "RUNAWAY"</p> <p>상영 희망(일):</p>
--

아래로 영화 필름을 보내주십시오:

이름: _____

기관명: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 번호: _____

- 대여료 15달러를 동봉합니다.
- 영화 필름 수령 후 대여료를 수표로 보내겠습니다.
- 관심 있는 분들에게 후원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관련 소책자를 _____ 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처(예약 신청서 및 대여료): 컴패션, 7774 W. Irving Park Rd., Chicago, Ill 60634

컴패션의 뜨개질 챔피언에게 실이 필요합니다.

뉴욕에 사는 스펜스(Spence) 여사는 컴패션 어린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후원자님으로서 어린이들이 눈 속에서도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形形色색의 예쁜 장갑을 보내주십니다. 어린이들은 받은 장갑이 다 해질 때까지 정말 소중하게 아끼며 사용합니다.

최근 스펜스 여사님이 450켈레의 장갑을 한국으로 보낸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는 196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후원자님은 그동안 3,100켈레의 장갑을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사님은 현재 실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컴패션> 이전 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원자님은 이 뜨개질 프로젝트를 위하여 그동안 다른 후원자님들로부터 뜨개질실을 공급받아 오셨습니다. 혹시 여유의 실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스펜스 여사의 뜨개질 프로젝트를 위하여 실을 제공해 주실 분이 계신다면,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윌리엄 F. 스펜스(William F. Spence), 5 Seneca Park Circle, Rochester, New York

선물 소포 관련 특별 공지

현재 한국으로 발송되는 거의 모든 소포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과도한 관세로 인해 여러분의 소포가 수령되지 않고 반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최대 3달러의 관세를 지불할 것이지만, 이는 여러분의 어린이가 받는 월간 양육비의 1/4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많은 후원자가 선호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즉, 여러분이 지정하는 대로 100% 전달되는 선물금을 시카고 사무소로 보내십시오. 선물금 관련 안내 책자를 분

실하셨다면, 사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아이티로는 어떤 소포나 우편도 보낼 수 없습니다.